
 <b>인천광역시</b>		<b>보 도 자 료</b>			
		배포일자	2022년 9월 23일(금) 총 3매		
담당 부서	교통정보운영과	담당자	• 교통정보팀장 신용식 ☎440-1751 • 담당자 권희수 ☎440-1752 박장빈 ☎440-1756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인천시, 내비앱에서도 신호 확인이 가능해 진다

- 도로교통공단, 4개 광역시, 3개 민간기업과 업무협약 -
-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통해 교차로 등 교통신호정보 확인 가능 -

내비게이션의 운행경로와 전방 교차로의 신호를 둘 다 확인해야 했던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. 인천시가 내년부터 내비게이션에서도 실시간으로 교통신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3일(금),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도로교통공단, 4개 광역자치단체(인천, 대구, 광주, 울산) 및 아이나비시스템즈, 카카오모빌리티, 티맵모빌리티 등 3개 민간기업과 「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.

인천시는 우선 내년 주요도로 15개소에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, 2024년까지 주요 간선도로 55개 노선 563개 교차로로 확대할 예정이다.

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면,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주행 경로에 있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의 신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 이렇게 되면 과속이나 꼬리물기 등 위험 운전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교통사고나 긴급차량 출동 신호정보 등의 돌발상황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

이 서비스는 고비용의 별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현장 서비스 방식이 아닌 기존 인프라의 고도화만으로도 가능한 센터 기반 방식으로 구현돼, 경제적으로도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. 또한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신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주행지원도 가능해 지게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.

이번 협약에 참가한 도로교통공단은 신호운영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동안 신호정보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경험을 쌓아 왔으며, 시범 사업을 통해 센터 기반의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검증해왔다.

이용수 인천시 교통정보운영과장은 “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는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자율주행 등 선진화된 미래 교통 환경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서비스” 라고 말했다.

#### <협약식 사진>

